

## 진로교육 바로 알기

### 자녀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가 졸업 후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단 장애를 가진 자녀의 심리와 정서에 충분히 공감을 표하고 자녀로 하여금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가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해 장점은 소소한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단점은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대화를 나눌 때, “○○는 엄마의 귀한 딸” “아빠의 사랑하는 ○○야”라는 표현을 습관화하고, 자녀의 의견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녀가 ‘일’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갖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일’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맡은 일에 정직과 성실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부모님께서 솔선수범을 통해 알려주세요. 장애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된 성공 사례를 찾아 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네 손가락으로 감동을 연주하는 이회아 피아니스트, 사지마비 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승복 의사, 천천성 무형성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된 김세진 군 등의 흥미진진한 사례를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녀의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녀와 함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특히 자녀의 장애 특성에 상급학교의

편의시설, 교내 이동성, 교수-학습 지원 등이 적합한지 세심히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의 진학과 향후 진로 방향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그리고 직업체험, 현장체험, 자원봉사의 기회를 알아보고, 자녀가 적극 참가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주세요.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이 희망하거나 도전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직장에 방문해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녀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가 ‘꿈’을 멈추지 않고 계속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녀의 꿈을 가로막지 않도록 항상 자녀의 생각과 태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열등감, 불안감 등을 유발해 자녀가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가 장애로 인해 자신의 ‘꿈’을 멈추지 않도록 늘 세심히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꿈’이 펼쳐 인생 전반과 향후의 생애 역할(대학생, 부모, 직업인, 평생학습자, 지역사회 일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합니다. 삶 전체의 생애 단계와 생애 역할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인사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하루 일과 되돌아보기 등)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자녀와 함께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4월입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직업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전자책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서』

- 사회서비스직,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엔지니어·건설·생산직 등 120가지 직업 정보 제공

#### 『스토리텔링이 있는 직업이야기』 시리즈

- 우리 언니 결혼식, 5월의 가족 피크닉 등 일상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직업들을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제공

#### 열람 방법

-커리어넷 > 진로교육자료 > 정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서』 전자책 제공 사이트)



※ 위의 커리어넷 게시물에 전자책 이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제가 개발한 여행상품을 선택한 분들이 무사히 관광을 끝내고 만족해하시면 보람을 느껴요” - 여행상품개발자 이상돈(지체장애 3급)

### Q1. 여행상품개발자를 직업으로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평소 경주의 관광이나 문화유적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그 과정을 마치고 1년간 문화해설사로 활동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 장애인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경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Q2. 여행상품개발자가 되기까지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제게는 경험이 가장 큰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개발하려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식이나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얻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고객이 느끼는 점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Q3. 여행상품개발자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고객을 이해하는 폭이 넓습니다. 장애인 관광객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나중에 또 오겠다고 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고맙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처럼 제가 개발한 여행상품을 선택한 분들이 무사히 관광을 끝내고 만족해하시면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도 느낍니다. 어려운 점은 제가 한 손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한 손으로 작업하는 연습을 통해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이제는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Q4. 여행상품개발자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면 보다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접목한다면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취업을 원한다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격 조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14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_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 자녀 진로상담

##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있나요?

Q. 저희 아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 한쪽 다리를 많이 저는데, 다행히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위생과, 치기공과, 간호학과 등의 보건계열 진학을 희망하는데, 혹시 장애인이라서 진학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학생 대상 특별전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장애가 있지만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 노력하는 자녀분에게 우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부모님 또한 훌륭하시고요.

지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계열 학과에 진학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열심히 노력해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직업군입니다.

많은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등전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학생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각 대학별로 마련되어 있는 기회균등전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형 기준 및 선발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